

OECD의 세계 정부조달시장 규모 추정에 관한 연구

金鴻律 KIEP 무역투자정책실 전문연구원
hykim@kiep.go.kr

OECD는 회원국들의 정부조달시장 규모가 총지출 기준으로 GDP의 19.9%, 순지출 기준으로 7.5%라고 추정하였다. 이는 그 동안 일반적으로 예상되어왔던 GDP 기준 10~20% 수준에 대체로 일치한다. OECD는 회원국의 조달시장이 전체조달시장(130개국대상)의 86.1%로서 세계조달시장의 대부분은 OECD 회원국이 차지하고 있음을 밝혀내었다. 또한 총지출 중에서 지방정부의 지출이 중앙정부의 지출보다 훨씬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정부조달협정의 적용에 있어 지방정부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있다. 이제 정부조달시장은 규모 면에서나 시장개방 측면에서 세계 교역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함이 밝혀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조달은 다자무역체제하에서 점점 중요하게 다루어질 것이고 향후 국제협상또는 양자협상에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것이다.

1. 서론

정부조달은 정부가 소비 및 투자 등 정부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물품과 서비스를 구입하는 조달행위를 일컫는 것으로 그 규모는 세계경제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시장 규모에 대한 추정은 각국의 정부조달체제와 관행의 복잡함으로 인해 그 동안 체계적으로 연구되지 못하고 EC 및 몇몇 전문가들에 의해 간헐적으로 추정되었을 뿐이다.¹⁾

일반적으로 각국의 정부조달시장의 규모는

1) 과거 정부조달시장의 규모를 추정한 대표적인 기관은 EC이다. EC는 지난 1988년과 1997년 두 차례에 걸쳐 광범위한 연구를 수행한 적이 있다.

나라마다 조달체제의 차이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개 자국 GDP의 약 10~20%로 추정되어왔다. 2001년 세계은행은 각국 정부의 최종 소비지출 규모는 자국 GDP의 약 15%를 차지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²⁾ 또한 위에서 언급한 개별연구자들의 연구결과에서도 자국 GDP의 약 18.3%로 분석되어 이들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OECD는 최근 회원국뿐만 아니라 비회원국가들까지 포함하여 각국의 정부조달 규모를 구체적으로 추정한 자료를 발표하였다. OECD의 추정은 세계 130여개국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추정이라는 점과 다양한 정부수준과 지출형태를 기준 추정해낸 공식자료라는 점에서 기준 추정과 구별된다. 자료에 의하면 1998년 기준으로 일반정부 지출 규모는 회원국의 경우에 19.96%, 비회원국의 경우에 14.48%로 추정하여 그동안 일반적으로 추정되어왔던 결과치와 크게 다르지 않으나 다소 높은 수치이다.

본고는 최근에 발표된 OECD의 자료를 토대로 정부조달시장 규모에 대한 추정방법과 그

에따른 추정결과를 살펴보고, 아울러 다자무역 체제에서 정부조달시장의 규모에 대한 중요성이 확산됨에 따라 정부조달이 갖는 정책적 시사점을 밝혀보았다.

정부조달시장은 그 규모로 보아 세계경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다자무역체제에서 점점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조달시장은 그 동안 조달행위와 연관되어 있는 정치적 민감성, 경제개발과 산업정책과의 관계, 그리고 각국 정부체제의 특성과 관행 등의 차이로 인해 비교적 개방이 부진하였던 분야이다. 앞으로 정부조달시장의 중요성이 인정됨에 따라 정부조달 이슈는 다자협상이나 국제협상 또는 양자협상과정에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것이다.

2. OECD와 정부조달

OECD는 이미 1963년부터 정부조달과 관련된 분석작업과 컨센서스 설립을 위해 노력해왔다. 기본적으로 OECD의 정부조달에 관한 연구는 정부조달의 중요성을 심도 있게 이해

1998년 보고서에서는 EU-12개국을 대상으로 공공조달시장의 크기를 추정하였는데, 공공조달과 관련한 장벽이 제거될 경우에 발생할 잠재적 저축에 중점을 두었다. 1997년 보고서는 1994년을 기준으로 EU-15개국의 공공조달시장의 크기를 SNA 데이터틀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개별연구자로는 Francois et al. (1996), "Public Procurement: A Post Uruguay Round Perspective" CEPR Discussion Paper No. 1412와 Trionfetti (2000), "Discriminatory Government Procurement and International Trade" *The World Economy* 231을 들 수 있다. Francois et al.은 미국을 대상으로 도하라운드 정부조달의 효과를 분석하였는데 1992-93년을 기준으로 정부조달시장의 크기가 GDP의 18.3%라고 추정하였다. 그리고 Trionfetti (2000)은 UN과 IMF 자료를 이용해 OECD 국가들의 조달시장을 추정한 바 있다.

2) World Bank (2001)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Table 4.9.

하고 정부조달에 대한 다자체제 내의 논의를 확대하는 동시에 다자규범의 적용을 확대시켜 공공의이익을향상시키는데있다.

그 동안 정부조달에 관한 논의에 있어 OECD 연구가 미치는 영향은 지대했다. OECD는 1973년 시작되어 1979년 타결된 도쿄라운드의 정부조달협정(GPA)의 타결에도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1976년에 제출된 OECD의 정부조달정책과절차, 관행에 관한 문서도 GATT에 크게 영향을미쳤다. 이밖에도 OECD는정부조달시장규모 추정과 정부조달투명성협정을 지원하기 위한 통계작업을하고있다.

정부조달과 관련한 OECD의 최근 연구는 정부조달시장의 규모에 관한 연구이다. 지난 9월 5일 OECD 무역위원회에서는 각국의 정부조달시장의 규모에 대한 종합 연구보고서를 발표하였다.³⁾ 무역위원회는 OECD 회원국은 물론 비회원국까지 포함하여 총 130여 개국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부수준과 지출형태를 기준으로 다양한 척도로 분석을 시도하였다. 특히 세계 각국의 1998년도 GDP를 기준으로 각국의 정부조달시장에 대한 절대적인 금액과 상대적인GDP 비중을추정해내었다.

이번 OECD의 연구는 다른 연구와 다르게 상당히 연구 범위가 광범위하고, 또 세밀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표 1>에서와 같이 총 14개

의 정부조달시장관련 비중이 조달수준에 따라 상세하게 언급되고 있다. 또한 OECD 회원국은 물론 비회원국 106개 국가에 대한 일반정부수준의지출및소비, 그리고투자등총7개 항목에 대한 비중을 추정해내었다. 그리고 회원국의 경우 1990~97년까지, 그리고 비회원국의 경우 1990~94년자료를 토대로 하고 있어가장최근의자료를반영하고있다.

3. OECD의 정부조달시장 규모 추정

가. OECD의 정부조달시장 규모 추정 방법

정부조달시장 크기에 관한 추정에서 OECD가 가장 많이 사용한 자료는 1968년도 국민계정체제(SNA: System of National Account)이다. 1968년도 SNA 버전은 현재까지 자료가 갱신되어왔는데, 특히 1999년 이후부터는 대다수의 OECD 국가들이 SNA 데이터와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SNA는 정부조달시장을 측정하는데유리하다.

SNA는 국가경제 활동에 관한 전반적인 통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간의 세부적인 데이터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구과정에서 이용되고 있다. SNA는 세 가지 자료를 기초로 하는데, 주요 통계로는 ▲ IMF

3) OECD(2001. 9. 5), Government Procurement: A Synthesis Report. TD/TC/WP(2001)17/REV1.

의 정부재정 통계, ▲ UN의 국민계정 통계 중 주요 도표와 상세 도표, 그리고 ▲ OECD의 국민계정중상세도표등이다.

OECD의 정부조달시장 규모 추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유의해야 될 항목은 최종소비지출(FCE: Final Consumption Expenditure)과, 중간소비(IC: Intermediate Consumption)이다. 최종소비지출은 임금지급(CE: Compensation of Employees), 고정자산소비(Fixed Capital Consumption), 간접세등 서비스와 모든 생산비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비해 중간소비는 경상계정하에서 정부에 의한 물품 및 서비스의 취득만을 의미한다. 그리고 정부의 물품획득에는 투자지출이 포함되는데, 이는 총 고정자본 형성(Gross Fixed Capital Foundation)에 해당된다.

또한 정부의 분류방법과 범위에도 유의해야 한다. OECD는 정부를 일반정부,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등으로 나누는데, 여기서 말하는 일반정부(general government)란 중앙정부, 주 및 지방정부, 그리고 사회보장기금등을모두포함한다.⁴⁾

OECD가 정부조달시장 규모 추정에서 사용한 접근방법은 소위 ‘bottom - up’ 접근방식이

다. OECD는 각국의 정부조달지출 통계를 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직접 제출 받았다. 현재 WTO 정부조달협정 제19조 5항에도 가입국에게 GPA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양한 자료를 매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각 담당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직접 제출받는 bottom - up 방식은 SNA 데이터베이스를 보완해주는 동시에 통보국가들의 일관된 통보절차와 편집으로 인해 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고 국가간비교연구에유리하다.

나. 정부조달시장의 규모

그 동안 정부조달의 크기는 대체로 자국 GDP의 10 ~ 20% 내외일 것으로 추정되어왔다. 이번엔 OECD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세계 전체적으로 정부조달시장의 규모는 1998년도 기준으로 5조 5,506억 달러이다. 이 중 OECD 회원국이 4조 7,338억 달러이고, 비회원국이 8,169억달러로서각각 GDP대비로는 19.96%와 14.48%이다.⁵⁾ 그리고 세계 전체 정부조달 금액 5조 5506억 달러는 세계 상품 및 서비스 수출의 82.3%에해당하는큰금액이다.

총지출에는임금 및국방관련 지출이 포함되

4) 따라서 OECD가추정에사용한정부조달의범위와WTO 정부조달협정이적용되는범위는약간다르다. WTO 정부조달협정은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일부공기업을포함하고있지만OECD가포함시킨사회보장기금은포함하고있지않다.

5) 한편 OECD가 1987년과 1994년에 EU의공공조달시장의크기는추정한바있다. 추정결과 1987년에는11.7%, 그리고 1994년에는 11.2 ~ 11.8%이다. 그리고 1994년 EU의정부조달시장규모는 5,474억 ECU로서GDP대비 8.7%이다.

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임금은 자국국민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교역이 불가능하며 국방관련 조달은 교역이 허락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총지출에서임금과국방관련 조달을 제외한 순지출 규모가 실제 타국에게 개방가능한(경합가능한) 지출이다. OECD 자

료에 의하면 1998년도 기준으로 순지출 규모는 총 2조 830억 달러이다. 이 중 OECD 회원국이 1조 7,953억 달러이고 비회원국이 2,877억 달러로서 GDP대비 비중은 각각 7.57%와 5.1%이다.⁶⁾ 순지출 2조 830억 달러는 세계 GDP의 7.1%이고 세계 상품 및 서비스 수출의

<표 1> 정부조달시장의 크기

(단위: %, 10억달러)

	OECD 회원국		OECD 비회원국		세계전체
	GDP대비%	금 액	GDP대비%	금 액	금 액
1998년 GDP(10억달러)		23,716.3		5,641.4	29,357.7
소비지출					
일반정부	17.09%	4053.1	14.12%	796.6	4849.7
- 임금	6.31%	1496.5	4.82%	271.9	1768.4
- 국방	14.17%	3360.6	9.54%	538.2	3898.8
- 임금및국방	4.73%	1121.8	2.09%	117.9	1239.7
총지출					
일반정부	19.96%	4733.8	14.48%	816.9	5550.6
중앙정부	7.13%	1691.0			
지방정부	12.12%	2874.4			
사회보장기금	1.22%	289.3			
총지출-임금					
일반정부	9.17%	2174.8	6.89%	388.7	2563.5
중앙정부	3.39%	804.0			
지방정부	5.44%	1290.2			
사회보장기금	0.51%	121.0			
총지출-임금및국방					
general 정부	7.57%	179.3	5.10%	287.7	2083.0(7.1%)
중앙정부	1.75%	415.0			

자료: 2001. 9, TD/TC/WP(2001)17/REW1.

6) 한편, EC가추정한EU 회원국내경합가능한정부조달의크기는GDP대비8.7%이다. 이는OECD가 EU를대상으로추정한8.03%보다약간높은비율이다. 이는EU가회원국들로부터좀더정교한자료를습득할수있기때문으로보이며, 또일부국방관련조달에대해서도OECD는모든대상을비교역(non-tradable)으로분류한데비해 EC는핵심국방(hardcore defence) 지출만을비교역 대상으로분류하였기때문이다.

30.1%에 해당되는금액이다. 그리고 경합가능한 순지출 금액 중에서 OECD 회원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86.1%로서 세계조달시장은 대부분 OECD국가들이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⁷⁾

한편 OECD는 지난 1999년에도 OECD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1997년도 정부조달시장을 추정한바 있다.⁸⁾ OECD 회원국의 경우총지출은 4조 5,710억 달러로서 회원국 총GDP의 20%를 차지하고, 순지출은 1조 9,084억 달러로서 회원국 총GDP의 8.35%로 추정하였다. 그리고 106개 비회원국의 경우 순지출은 2,870억 달러로서 총GDP의 5.1%에 해당하는 것으로추정하였다.

한편 OECD의 총지출을 정부수준별로 분석하면 지방정부의 지출이 큰 비중을 차지함을 알 수있다. OECD의총지출 4조 7,338억 달러 중에서 중앙정부가 약 35%를 차지하고 나머지 65%는 지방정부 및 사회보장 기금 등 하위정부가차지하고있다.

정부조달 비중을 조달수준에 따라 세분화하여 평가하는 것은 WTO 정부조달협정의 확장여부를 평가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 OECD의 추정에

따라하위정부의조달비중이총조달의 65%라는 의미는 WTO GPA하에서의 정부조달시장 규모가 1979년 도쿄라운드 결과 체결된 GATT 정부조달협정보다 세 배 정도 크다는것을의미한다.⁹⁾ 다시 말하면 현재의 WTO 규범하에서의 정부조달의적용범위가과거의GATT 규범하에서의적용범위보다 세 배 정도 금액 증가효과를 발휘한다는것을의미한다.

이밖에도 자료를 통해 전반적으로 OECD 회원국들의 조달시장 비중은 비회원국의 그것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고있다. 단순히 총지출금액만을 비교해봐도 OECD 회원국은 비회원국에 비해 5.8배의조달시장규모를 가지고있다. 이는 OECD 회원국의 조달시장이 전체 조달시장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실제 그 효력도 선진국들에게 큰 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국방관련 조달시장의 비율은 비회원국의 것이 높다. 그리고 투자지출비율도비회원국의비율이회원국보다높다.

<표 2>는 OECD 개별국가들의 상대적인 조달시장 규모의 크기를 나타내고 있다. <표 2>에서 OECD는 총 8개 항목의 추정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추정치는 정부조달의 정부수준별

7) 이때각국의GDP 규모를고려한가중평균기준으로는80.2%로조금낮아진다.

8) OECD(1999. 10), TD/TC/WP(99)52.

9) 우루과이라운드 결과 1995년 체결된 WTO GPA와 도쿄라운드 결과 1979년 체결된 GATT GPA는 적용범위가 약간 다르다. GATT GPA는중앙정부의물품만을적용대상으로하나, WTO GPA는중앙및지방정부, 그리고일부공기업의물품, 서비스, 건설 서비스까지적용범위가확대되었다.

비율뿐만 아니라 총지출에서 임금과 국방관련 조달을 차례로 제외시키며 조달규모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우측의 다섯 개 컬럼은 총 정부지출 중

에서 임금과 국방관련 조달을 차례로 제외한 비율로서 타국과 경합(개방) 가능한 정부조달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이 중 가운데 총지출(항목**)의 정부수준별 비중은 각국의 총지출

<표 2> OECD 국가의 정부조달시장 크기

(단위: %)

OECD	총지출*			총지출(임금제외)**			총지출(임금및국방제외)***	
	일반	중앙	지방	일반	중앙	지방	일반	중앙
캐나다	25.83	4.60	22.32	11.47	1.69	8.80	10.40	0.62
미국	19.49	6.94	12.57	8.80	3.71	5.11	6.18	1.09
호주	20.02	5.72	14.78	8.85	2.07	5.81	7.64	0.86
일본	16.77	3.53	12.99	9.35	1.85	7.59	8.98	1.29
한국	16.24	6.84	8.97	9.13	3.94	5.10	7.20	1.94
뉴질랜드	18.13	13.52	4.79	7.28	3.66	3.80	6.67	3.05
오스트리아	24.68	7.67	12.63	12.16	2.75	5.70	11.71	2.31
벨기에	17.23	10.09	5.63	5.37	2.48	1.95	4.84	1.95
체코공화국	24.94	9.30	8.40	17.03	4.45	6.53	15.74	2.71
덴마크	28.96	8.71	19.30	10.63	3.34	7.20	10.04	2.75
핀란드	25.63	8.58	18.77	9.64	4.22	7.44	9.00	3.58
프랑스	23.10	11.03	7.33	9.05	3.24	4.22	7.63	1.81
독일	17.81	2.94	13.77	7.32	1.52	5.39	6.72	0.81
그리스	18.64	12.98	1.61	7.29	4.32	0.84	6.73	3.76
헝가리	29.77	13.47	13.76	18.31	8.56	7.38	16.78	3.03
아이슬랜드	25.80	14.02	8.17	12.92	4.81	5.07	11.76	3.62
아일랜드	20.81	8.73	11.70	10.08	2.73	7.11	9.93	2.59
이탈리아	20.03	9.99	9.69	7.99	2.72	4.90	7.38	2.12
네덜란드	18.74	7.67	10.16	8.96	3.68	4.90	7.98	2.71
노르웨이	25.44	9.61	16.05	11.44	5.61	6.06	9.65	3.82
폴란드	22.57	14.40	7.41	10.69	6.55	4.31	9.72	5.57
포르투갈	20.98	16.42	4.41	7.24	4.83	2.59	6.22	3.80
슬로바키아공화국	25.08	18.09	3.70	15.34	9.46	2.79	14.09	8.21
스페인	20.51	7.11	8.88	8.74	2.63	4.44	8.06	1.95
스웨덴	33.15	10.66	23.14	14.60	6.25	9.00	13.01	4.67
스위스	19.58	3.43	15.68	8.60	2.08	6.24	8.02	1.50
터키	17.72	14.83	2.13	4.47	5.58	1.13	6.84	4.96
영국	25.17	14.57	9.71	13.08	9.00	3.29	9.97	5.88
OECD 단순평균	22.22	9.84	11.02	10.32	4.20	5.17	9.25	3.11
OECD 가중평균	19.96	7.13	12.12	9.17	3.39	5.44	7.57	1.75
EU 가중평균	21.48	8.87	10.79	9.24	3.76	4.67	8.03	2.53

자료: OECD.

중에서 임금을 제외시킨 상대적 총지출이고 가장 오른쪽 총지출(항목^{***})의 두 개 비중은 총지출에서 국방조달 및 임금을 모두 제외시킨 비중으로 이론적으로 경합가능한 정부조달시장의 비중이다. 일반적으로 국방 및 임금은 교역불가능한정부지출이다. 총지출중경합가능 한(contestable) 지출의 비중이란 소비와 투자 지출을 위한 정부취득은 포함하고 교역불가능 한 임금과 자유로운 교역이 어려운 국방관련 지출은 뺀 금액이다. 그런데 경합가능한 지출의 비중은 총지출의 비중보다는 적은 것이 일반적인데 평균보다 지나치게 비중이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국가들이 있다. 이들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총지출 중에서 임금과 국방지출이 낮거나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왼쪽의 처음 총지출(항목^{*})은 정부소비 및 투자지출의 합으로서 총지출(TE)을 나타낸다. 총지출은 다시 일반정부, 중앙정부, 그리고 지방정부 수준별로 조달금액의 GDP대비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표 2>를 참고하면 총GDP대비 정부조달 비중이 비교적 높은 나라는 스웨덴(33.15%), 헝가리(29.77%), 덴마크(28.29) 등이고, 비교적 낮은 나라는 한국(16.24%), 일본(16.77%), 벨기에(17.23%) 등이다.¹⁰⁾ 이 중에서도 한국

의 비중은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낮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총지출에서 임금과 국방을 제외한 순지출을 비교하면 한국이 OECD의 평균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의 정부지출 중에서 임금과 국방지출의 비중이 낮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국 교역가능하고 경합가능한 지출을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의 정부조달시장은 전체 GDP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OECD 전체로 볼 때도 평균에 해당된다.

<표 2>의 하단은 OECD의 평균 비율을 나타내는데, 이는 단순평균과 GDP가중평균을 기초로 총 여덟 가지 비율을 총괄한 것이다. 이때 가중평균 비율은 각 국가의 상대적 크기를 고려한 것이므로 OECD 전체 시장규모의 평균보다 더 좋은 지표이다. <표 2>에 따르면 OECD 회원국들의 조달시장을 GDP대비 가중평균한 비중은 총지출의 경우 19.96%이고, 총지출에서 임금을 제외한 지출의 비중은 9.17%이며, 총지출에서 임금과 국방관련 조달을 모두 제외한 순지출의 비중은 7.57%이다.

그리고 OECD의 경합가능한 지출 2조 830억달러 가운데 일반정부(중앙 및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포함)의 조달이 76.9%를 차지하고 중앙정부가 23.1%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10) 2001년도 세계은행 자료에 의하면 1999년도 한국의 정부최종소비지출은 GDP의 10%이며 미국은 14%, 일본은 10%, 유럽의 EMU 지역은 20%라고 추정하였다.

<표 3> OECD 비회원국의 정부조달시장의 크기

(단위: %, 10억달러)

구 분	소 비 지 출			총 지 출		G D P 1998년도 (10억달러)
	총소비지출	총소비지출 - 임금	총소비지출 - 국방	총지출	총지출 - 임금	
아프리카						
이집트	9.45%					82.71
케냐	16.27%	3.16%	14.43%	19.17%	6.06%	10.37
모로코	16.59%					36.12
나이지리아	3.89%	1.23%				36.14
남아공화국	19.74%			21.77%		116.73
아메리카						
볼리비아	12.45%	1.84%				7.96
브라질	16.46%	7.21%				776.94
칠레	9.54%			11.51%		74.32
콜롬비아	10.27%	1.55%	9.06%	13.48%	4.75%	90.41
코스타리카	16.75%			18.36%		10.42
에쿠아도르	9.33%	4.21%	8.05%	13.23%	8.11%	19.30
온두라스	11.12%					5.34
페루	7.94%			9.87%		64.06
베네수엘라	8.60%	2.31%		10.28%	4.00%	95.02
아시아						
방글라데시	13.95%		12.53%			41.42
중국	12.84%					960.79
홍콩	8.69%	2.49%		11.00%	4.81%	166.45
인도	10.54%	3.44%	7.42%	13.29%	6.18%	420.31
인도네시아	9.20%					215.00
이란	11.06%	2.63%	8.00%			187.42
말레이시아	13.75%		10.76%			67.48
파키스탄	12.87%	6.61%		16.29%	10.03%	64.13
필리핀	9.85%	2.94%		14.29%	7.38%	82.24
사우디아라비아	33.86%					125.84
싱가포르	9.35%					84.38
태국	9.67%	3.08%		17.31%	10.72%	117.04
베트남	15.93%					24.60
유럽						
벨루루스	19.15%	10.54%	10.54%	21.27%	12.65%	14.28
불가리아	8.08%					12.06
라트비아	14.70%	7.79%		17.09%	10.18%	6.19
러시아	17.39%		12.70%			283.82
슬로베니아	19.62%					19.99
우크라이나	15.77%	7.95%	9.33%	18.15%	10.33%	42.70

자료: OECD.

모든 정부수준을 포함한 일반정부가 중앙정부보다 조달금액이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지방정부의 조달금액이 절대액 측면에서 크기 때문이다.

<표 3>은 106개 OECD 비회원국가의 일반정부의 정부조달시장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각각의 비율은 1990~94년 동안의 매년 비율의 평균이다. OECD 비회원국들의 정부조달 금액은 OECD 회원국에 비해 매우 낮다. 우선 총지출 규모 면에서 17.2%로 낮은 편이며, 결합가능한 조달금액도 16%로 매우 낮다.

한편 OECD 비회원국들의 정부수준별 비율은 자료미비로 OECD 회원국만큼 세분화되지 못했고 일반정부의 총지출과 소비지출을 중심으로 분석되었다. 여기에 임금 및 국방관련 조달을 제외한 결합가능한 조달지출이 추가되었는데, 이것 역시 자료 미비로 많은 나라에서 누락되고 있다.

4. 결론 및 시사점

이번 OECD 자료는 정부지출형태별, 정부조달 수준별로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측정되었다. 또한 회원국은 물론 비회원국을 포함하여 세계 130개국을 포괄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어떤 자료보다 자세하고 광범위한 점이 특징이다.

OECD 추정에 따라 세계 정부조달시장 규모는 기존에 예상되었던 바와 같이 총지출 기준

으로 자국 GDP의 10~20%를 차지하고 있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그리고 타국과 결합 가능한 순지출 규모는 약 7.5%임이 드러났다. 순지출의 비중은 각국의 정부조달시장의 대외 개방 정도를 타나내는 지표이다. OECD 회원국의 경우 총지출 중에서 순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38% 정도를 차지한다.

또한 이번 자료를 통해 선진국 그룹인 OECD의 정부조달 비중이 비회원국보다 높고 또 금액 면에서도 비회원국보다 5.8배 정도 높아 세계 조달시장의 대부분은 선진국이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밖에도 회원국들의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업의 총지출과 순지출 등이 비교되었다. 이는 각 하위 수준에서의 정부조달 규모와 조달시장의 분권화 정도를 가늠해볼 수 있어, 향후 이들 통계는 정부조달관련 협상에서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현 WTO 정부조달협정의 특징은 적용범위가 지방정부와 양허된 공기업까지 포함하고 있어 과거 도쿄라운드 정부조달협정의 보다 적용범위가 넓다. OECD 추정에 의하면 중앙정부가 약 35%를 차지하고 나머지 65%는 지방정부 및 사회보장기금 등 하위정부가 차지하고 있어 지방정부의 정부조달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결국 정부조달시장은 규모 면에서나 시장 개방 측면에서 세계 교역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한바, 현 다자무역체제하에서 점점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정부조달시장은 조달행위와 연관되어 있는 정치적 민감성, 경제개발과 산업정책과의 관계, 그리고 각국 정부체제의 특성과 관행 등의 차이로 인해 비교적 개방이 부진하였던

분야이다. 앞으로 점점 정부조달시장은 다자 협상이나 국제협상 또는 양자협상과정에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것이다. 